

김상식호, 4개국 국제농구의 과제

대한민국 센터 라건아 세계 강자들과 붙는다

NBA 선수 상대 첫 매치업 기대감

한국남자농구 대표팀(FIBA랭킹 32위)은 24일부터 26일까지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리는 현대모비스 초청 4개국 국제농구 대회에서 리투아니아(6위), 체코(24위), 앙골라(39위)와 경기를 치른다. 이는 31일 중국 우한에서 개막하는 라건아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을 대비한 마지막 모의고사다.

한국을 비롯해 4개국 국제농구대회에 출전하는 리투아니아, 체코, 앙골라는 모두 월드컵에 출전한다.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5위), 러시아(10위), 나이지리아(33위)와 함께 B조에 속한 한국은 김상식 감독(51)의 주도아래 준비한 전략 전술을 이번 4개국 국제대회를 통해 테스트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회는 한국의 대들보로 자리매김한 라건아(30·울산 현대모비스)의 국제무대 경쟁력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지난해 귀화한 라건아는 센터로는 키가 작은 199cm의 신장이지만, 월드컵 예선에서 경기당 26.7점·12.5리바운드의 기록을 남기며 단순히 아시아 최고 센터로 자리매김했다. 라건아의 합류로 한국은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리바운드에 대한 고민을 털어낼 수 있었다.

라건아는 대학 졸업 후 아시아 무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졸업 한국, 필리핀 리그에서 프로생활을 이어왔으며 귀화 후 한국 국가대표가 된 이후에도 아시아 퀀트 국가만 상대했다. 4개국 국제농구대회를 통해 라건아는 처음으로 세계강호들과 맞대결을 펼친다. 특히 리투아니아의 주축 선수이자 미국프로농구(NBA) 리거인 요나스 발렌슈나스(뎀퍼스 그리즐리스)는 라건아의 커리어에서 가장 강한 매치업 상대가 될 전망이다.

라건아 스스로도 기대감이 높다. 매년 꾸준히 기량을 성장시키며 KBL 최고의 선수로 거듭난 그는 NBA선수들과의 매치업을 기대하고 있다. 동기부여가 확실하다.

라건아가 리투아니아, 체코, 앙골라를 상대로 '더블-더블(득점-리바운드) 머신'의 면모를 발휘한다면 한국은 월드컵 목표인 1승도 좀 더 현실화가 될 전망이다. 라건아의 손에 '월드컵 1승'이 달렸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임성재 신인왕 가능성, 외신들도 인정했다

(한국인 첫 PGA 신인왕)

“이 대회 출전자 8명 모두 신인왕 경쟁자보다 대회 출전 횟수 압도” 골프닷컴, 임성재 꾸준함에 찬사 ESPN “프레지던트컵 추천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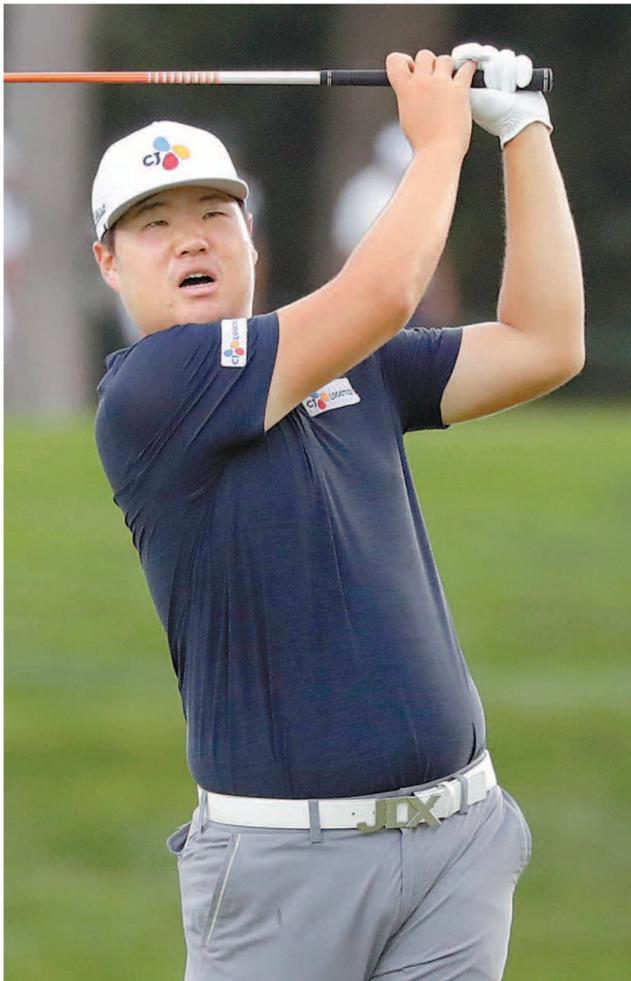
‘특급 루키’ 임성재(21·CJ대한통운)의 꿈이 점차 무르익어져 가고 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PO)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이 22일(한국 시간) 개막한 가운데, 미국 주요 외신들은 한국인 최초의 신인왕 등극을 노리는 임성재를 주목하고 있다. 쟁쟁한 경쟁자들이 많지만 현재로서는 임성재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는 분위기다.

골프닷컴은 22일 “신인왕 경쟁은 임성재와 콜린 모리카와(22·미국)의 싸움으로 압축됐다. 모리카와가 1승을 했지만 임성재는 믿는 구석이 있다. 역대 투어 챔피언십을 밟았던 8명의 루키들은 모두 신인왕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ESPN 역시 주목해야 할 25세 이하 신예 25인 가운데 임성재를 6번째로 꼽으면서 “이번 시즌 루키들 중 유일하게 투어 챔피언십을 뛰는 임성재는 12월 열리는 프레지던트컵(미국팀과 인터내셔널팀의 골프 대항전) 단장 추천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며 달란트 위상을 전했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 루키들 가운데 가장 높은 페덱스컵 포인트(1407점·24위)를 얻어 30장뿐인 PO 최종전 티켓을 따냈다. 비록 1승씩을 챙긴 모리카와와 카메론 랭드(24), 아담 롱(32·이상 미국) 등 다른 경쟁자들과 달리 우승이 없지만 유



출전 대회	임성재	콜린 모리카와	카메론 랭드	아담 롱
페덱스컵	35개	9개	26개	27개
포인트	1407점	840점	819점	734점
상금	285만 달러	175만 달러	169만 달러	164만 달러
평균타수	70.253타	★69.517타	71.393타	71.464타
톱10 진입	7회	3회	3회	2회

※ 콜린 모리카와 평균타수는 총출 라운드 미달로 공식 기록은 아님

일하게 투어 챔피언십을 뛰게 되면서 수상 가능성을 높였다. 상금(34억5000만 원·30위)과 평균타수(70.253타·24위), 톱10 진입(7회·8위) 등 각종 부문에서도 신인들 중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다.

골프닷컴은 “임성재는 이번 투어 챔피언십으로 35번째 대회를 뛰게 된다. 이는 신인상 경쟁자들보다 8~9개가 많은 숫자다”면서 임성재의 꾸준한 체력 관리를 높게 평가했다. 35개 대회는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100명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출전 횟수다.

한국인은 물론 아시아인 최초로 PGA 투어 신인왕 등극을 꿈꾸고 있는 임성재는 22일 연습 라운드를 마친 뒤 진행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초 PO 최종전은 내 원래 목표가 아니었다. 그저 다음 시즌 시드 획득이 1차 목표였다. 사실 나도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남자프로골프 ‘특급 루키’ 임성재가 아시아인 최초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신인왕 등극의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 올 시즌 신예 가운데 유일하게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참가하며 신인왕 가능성을 높인 그를 향해 외신의 관심도 쏠린다. AP뉴시스

“3차전 상금은 제가 좀 써봐야겠어요”

PBA투어 우승 ‘당구 아이돌’ 신정주

“중1때 당구의 길 알려주신 아버지 전국체전 준우승 계기 선수의 길 성인무대 고전끝에 꿈같은 첫 승 2차전 우승상금은 부모님 드렸죠”

신정주(24)는 지난달 27일 끝난 ‘신한금융투자 PBA 챔피언십’에서 그야말로 깜짝 우승을 거뒀다. 그간 성인 무대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PBA 투어 2차전에서 쟁쟁한 경쟁자들을 모두 꺾고 이름 석 자를 알렸다.

첫 우승 이후 달콤한 한 달을 보낸 신정주를 21일 서울시 서초구의 한 당구장에서 만났다. 결승전 다음날 아침잠에서 깬 뒤에야

우승을 실감했다는 24살 신예는 숨은 얘기가부터 풀어놓았다.

“2차전은 총 닷새간 열렸는데 나는 속소를 하루만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승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런데 상위 토너먼트로 올라가면서 감각이 좋아졌고 떨려 우승까지 해버렸다. 결국 결승전 당일까지 나홀로 속소를 추가로 연장해야 했다. 물론 기분은 너무나 좋았지만 말이다.”

신정주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큐를 잡았다. 공부는 뒷전으로 미루고 PO방만 다니던 찰떡서니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준 이는 아버지였다.

신정주는 “그전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아버지께서 실력이 출중하신 당구 동호인이셨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처음 큐를 잡은 뒤 운명처럼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됐다”



출중한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신정주는 찰떡서니 아들에서 ‘당구계 아이돌’로 당당히 거듭났다. 지난달 PBA 투어 2차전에서 성인 무대 첫 우승을 거둔 그는 기세를 몰아 다음달 개막하는 3차전서 시즌 첫 우승을 노린다. 사진 제공 | PBA 투어

면서 “중요한 계기도 있었다. 주위에 나같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2010년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됐는데 여기서 준우승을 했다. 이후 별다른 고민 없이 선수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2013년 전국체전 우승과 2014년 종합학생선수권 우승 등으로 탄탄대로였지만 성인 무대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32강 징크스가 매년 발목을 잡았다. 16강행 티켓을 놓친 적만 무려 12번. PBA 투어 개막전이었던 6월 파나소닉 오픈에서도 64강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2차전 우승으로 마침내 성인 무대 첫 승을 거둔 신정주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개막하는 PBA 투어 3차전에서 올 시즌 첫 다승을 노린다. 출중한 실력과 겸손한 외모로 ‘당구계 아이돌’이란 별명을 얻은 신예의 포부는 24살 또래다웠다.

“2차전 우승 상금 대부분은 부모님께 드렸습디다. 3차전 상금은 제가 좀 써보려고요, 하하.” 고봉준 기자

“2021년까지 KOC-대한체육회 분리”

(대한올림픽위원회)

문체부, 엘리트 스포츠 개선안 권고

“진천 선수촌 개선·연금제도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22일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이번 6, 7차 권고에서는 한국이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과 체육단체 구조 개편 전반에 대해 혁신안을 권고했다.

혁신위원회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국제대회에서의 성과를 통해 국민적 기쁨과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한 반면, 선수 인권 소홀, 체육단체의 비민주적

운영,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간 단절 등 부정적 문제도 야기했음을 지적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진천선수촌 개선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체육요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선수 저변 확대와 스포츠과학을 접목한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에 대해서는 ▲선수등록제도 개편 ▲생활-엘리트스포츠대회 개편 ▲국가대표 하위육성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혁신위원회는 대한체육회가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한 엘리트스포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여자배구대표팀, 3-0 대만 완파

여자배구대표팀이 22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신한금융 서울 아시아여자배구선수권대회 8강 라운드 E조 1차전에서 대만을 세트스코어 3-0(25-22 25-13 25-19)으로 완파했다. 베스트 멤버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주장 김연경이 양 팀 최다 17점을 책임졌다. 김연경 뿐만 아니라 이재영(14점), 김희진(12점)으로 꾸려진 삼각 편대가 고른 활약을 펼쳤고 센터 양효진(8점)과 김수지(6점)도 각 3, 2개 블로킹으로 힘을 보탤었다. 곧장 23일에는 태국과 진검 승부를 벌인다. 안방에서 이 대회 첫 우승을 목표하는 대표팀이 꼭 넘어야 할 산이다. 아시아 배구 강국 중 하나로 꼽히는 태국은 내년 1월 열리는 2020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실질적 경쟁자라 기성제일이 필수다.